

다산학 39호 (2021.12) | 211~246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함영대 |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목차

1. 서론
2.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 사항
3. 결론

1. 서론

근래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주선과 관련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여유당 전서』의 정본이 마련되었다. 학계에 제공되어 다산학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미 정본이 만들어졌음에 불구하고 정본의 기초가 된 『여유당 전서』의 필사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그 연구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산의 저작이 워낙 방대할 뿐 아니라 다산 스스로 적극적인 개고 과정을 거쳐 원고를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필사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저작 후 난외에 설명을 추가한 필사본은 집필의 과정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최종 완성본을 집에서 잃어버려 다른 집에 소장된 것을 다시 필사하기도 했던 『흙심서』의 경우도 있어¹⁾ 필사본 연구는 여전히 유효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근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집필된 『다산 필사본 연구』(다산학술문화재단, 2019)는 최근까지의 성과가 집약되어 다산 필사본 연구의 대체적인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그 연구에서는 다산의 전체 저작에 대한 하나하나의 검토가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본고에서 검토할 『맹자요의』 역시 아직 필사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서종書種 가운데 하나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집체저술의 형태”로 이해²⁾되는 다산의 저작들은 다산과 그의 제자들이 처음 저술과 완

1) 박철상, 「다산 저작 고본의 제문제」,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94-95쪽.

2)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실사구시의 한국학』, 2000, 창작과 비평사.

성단계에서 필사, 수정, 증보한 원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³⁾ 특히 현 전하는 다산 저술의 고본稿本은 상당수가 다산 제자들의 필사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동尹峒이라고도 불리는 윤중수尹鍾洙로 그는 글씨에 매우 뛰어나 다산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저작의 2/3를 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다산이 강진의 다산초당에 있을 때의 주인이었으며 그 때 다산이 집성한 글이 모두 300여권이었는데 2/3는 모두 그의 글씨였다.⁴⁾

1902년 광문사본으로 나온 『목민심서』의 간행을 사례로 들어보면 윤중수 집안에서 전해오는 ‘윤중수 필사, 다산 교정’의 초고본과 다산 집안에서 전해오던 개정본을 상호 대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⁵⁾

수많은 다산의 저작 가운데 『맹자요의』의 경우는 『목민심서』 등 다른 저작의 경우와 달리 이본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근래의 연구도 1817년에 작성된 증신영노贈申永老의 목록에 『맹자설孟子說』 9권으로 기재된 이래 1822년,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의 집중본集中本에도 ‘맹자설’이 ‘『맹자요의孟子要義』’라는 서명만 수정되고 9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930년대의 ‘열수전서洌水全書’의 총목록에도 9권을 유지하여 3책으로 분장되었으며, 『여유당집』의 권차는 192~200권으로 추정되었다.⁶⁾ 그러나 가장본의 현재 권차는 71~73권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전체 권차 또한 조정과정을 거쳤음을 확인시켜 준다.

2012년 『정본 여유당전서』가 간행되기 전까지 다산 연구의 기본텍스

3)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19쪽.

4) 박철상,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필사본 조사와 성과」, 여유당전서 정본사업 워크숍 발표문, 2006.

5) 안병직, 「『목민심서』 考異」,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6) 김보름, 「『여유당집』 체제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136~144쪽.

트로 활용된 신조선사의 『여유당전서』는 1936년 다산 서거 100주년을 전후한 시기인 1934~1938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의 교정을 거쳐 외현손 김성진金誠鎭 편으로 모두 76책으로 간행된 것이다.⁷⁾ 간행에 앞서 ‘가장본 여유당전서’를 일람했던 최익한은 그 감회를 아래와 같이 드러냈는데, 이는 현재 확인되는 가장본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최익한이 본 가장본이 현전하는 가장본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 초고본草稿本을 보면 문생門生, 자질子姪이 경건敬虔하게 등사謄寫한 외에 단정아묘端正雅妙한 필법이 일가를 이룬 다산의 친필이 간혹 발견된다. 지엽紙葉마다 외광내란外框內欄의 흑선을 정제整齊하게 그었고, 군장菌粧과 표제標題는 모두 명결우아明潔優雅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력과 기술에 다시 한 번 감탄케 한다.⁸⁾

전술한 가장본 『맹자요의』는 한 사람의 정갈한 필체로 3책 형태로 전해진다. 군데군데 교정과 추가의 흔적이 있으며, 흑묵과 주묵으로 독서의 흔적도 남기도 있어 최종 필사된 후에도 거듭 교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교정의 내용은 규장각에 소장된 『여유당집』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신조선사의 『여유당전서』에도 반영되어 이 가장본을 기초로 『여유당집』의 필사와 신조선사의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유補遺’의 표기로 보아 신조선사의 간행본은 『맹자요의』의

7) 장동우,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153~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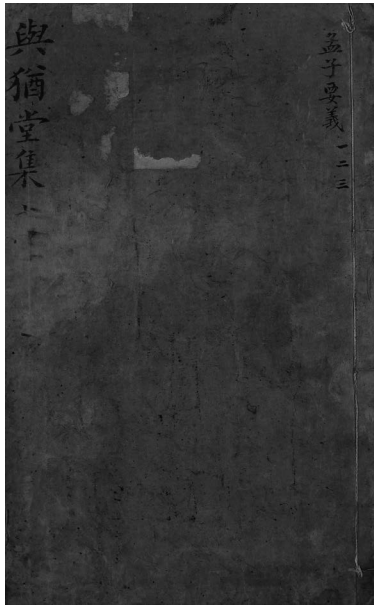
8) 최익한, 『실학과와 정다산』, 청년사, 1989, 452쪽.

경우, 가장본을 모본으로 활용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본 여유당전서』의 효과적인 활용에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은 물론 정본과는 별도로 『맹자요의』의 집필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 저술이 심도를 더해가는 과정을 내밀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함께 고찰한다. 이는 완성된 정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맹자요의』의 또 다른 진경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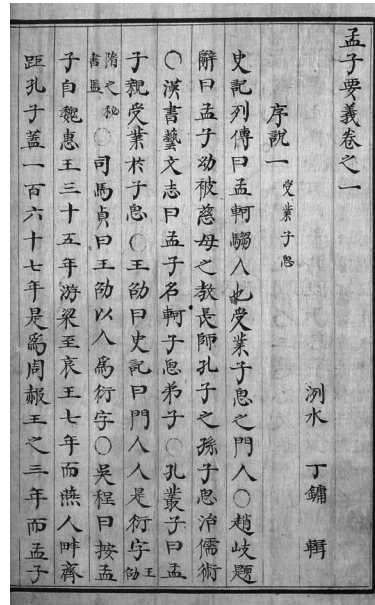
2.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 사항

먼저 가장본의 전체적인 면모를 검토해 본다. 가장본 『맹자요의』는 권차와 초기 편집본 사항을 잘 보여준다. 『여유당집』 71권의 경우, 서설을 비롯하여 공손추하公孫丑下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72권과 73권의 그 전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다음 쪽의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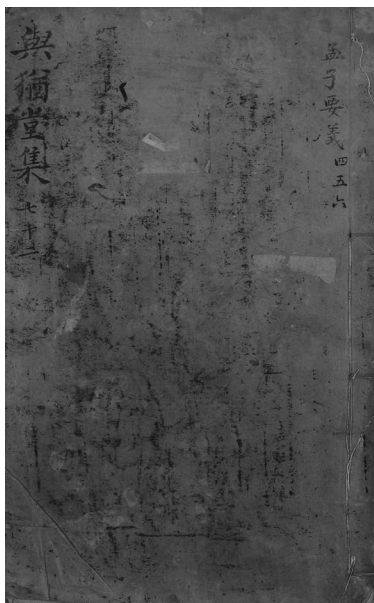
다산은 『맹자』의 경우, 조기가 상하로 분장한 14편의 편장체제를 따르지 않고 ‘맹자7편’이라는 최초의 원본 체제를 고수했는데, 이 또한 『맹자』라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다산의 기본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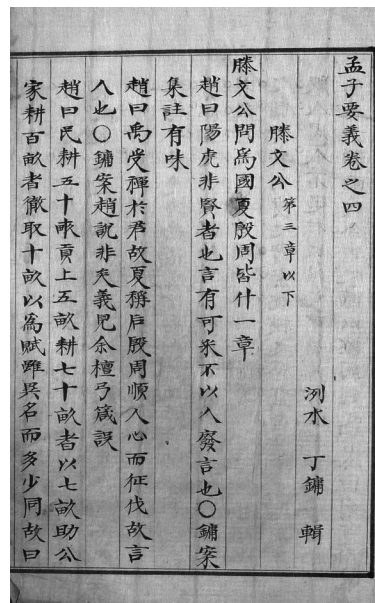
여유당집 권71



권1 서설



여유당집 권72



권4 등문공

孟子要義卷之三

公孫丑下

冽水 丁鏞 輯

天時不如地利章

趙曰天時謂時日支干五行旺相孤虛之屬○孫曰古之用兵者莫不布策揲龜迎日計月望雲占風觀星候氣以察吉凶以明利害○又曰孤虛之法以一畫為孤無畫為虛二畫為實以六十甲子日定東西南北四方然後占其孤虛實而向背之即知吉凶矣又如周武王犯歲星以伐商魏太祖以甲子日破慕容凡用師之道

孟子要義卷之二

公孫丑第二

冽水 丁鏞 輯

公孫丑問管仲晏子章

趙曰曾西曾子之孫集註○麟曰經典序錄曾中字子西曾參之子夏以詩傳曾中左丘明作傳以授曾中曾西之學楚闔室申公子中公子中皆字子西則曾西之為曾中無疑趙曰文王之時樂為功故言何可當也○集曰當猶敵也○蔡曰當猶敵也以其不可當也孰謂文王不足法也

권2 공손추

권3 공손추하

孟子要義卷之六

離婁

冽水 丁鏞 輯

君子之澤五世而斬章

趙曰大德大凶流及後世自高祖至玄孫善惡之氣乃斷○集曰楊曰四世而絕服之窮也五世祖免殺同姓也六世親屬竭矣大傳服窮則遺澤浸微故五世而斬○蔡曰君子小人蓋以位高下別義○鏞案趙注非矣大凶之人安有遺澤若云惡澤亦澤則蘇既死焉乃嗣興即為殄祀其缺復用先王之法父子兄弟罪不相及

孟子要義卷之五

離婁第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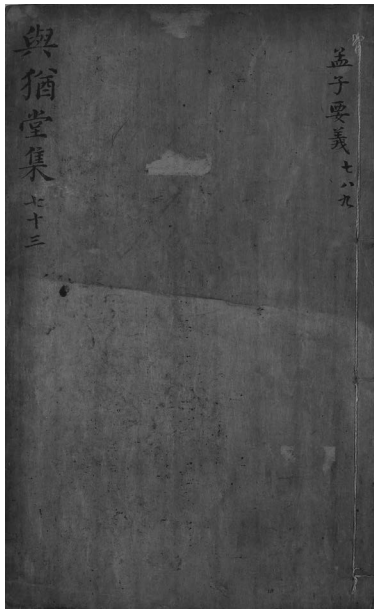
冽水 丁鏞 輯

離婁之明公輸子之巧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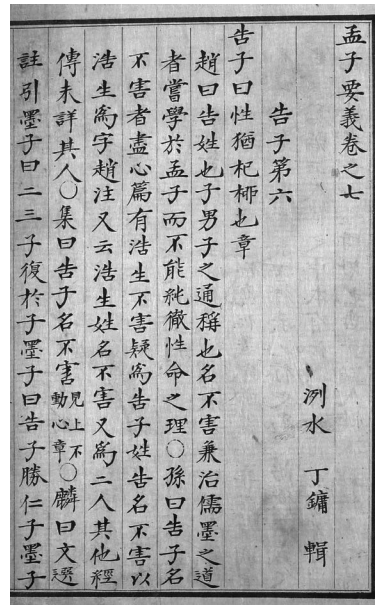
趙曰黃帝亡其玄珠使離朱索之離朱即離婁也能視於百步之外見秋毫之末出莊子毛曰六律是十二管非作樂之器三代後並無此物而五音不絕于世何以非六律不能正五音○鏞案六律乃造樂器之尺也秦漢以來吹律之說作於是乎六律亡矣然且以十二律配之於五聲二變其剩者五謂之

권5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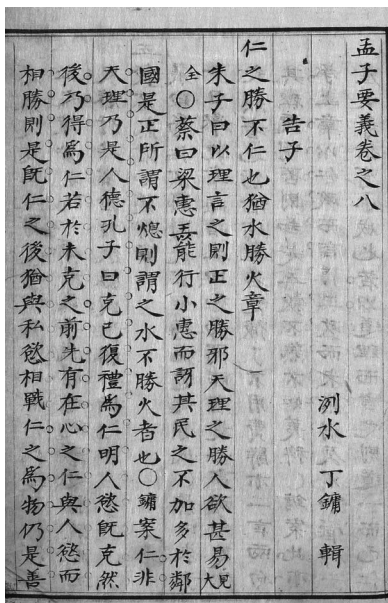
권6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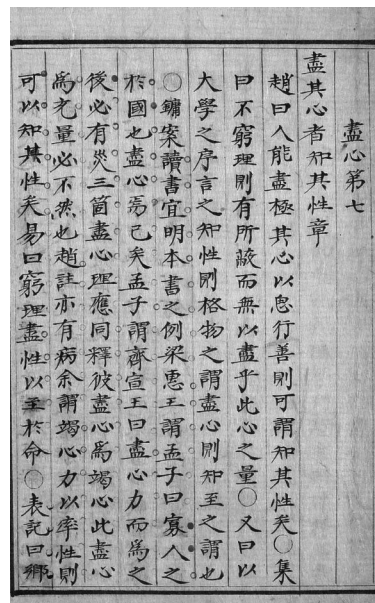
여유당집 권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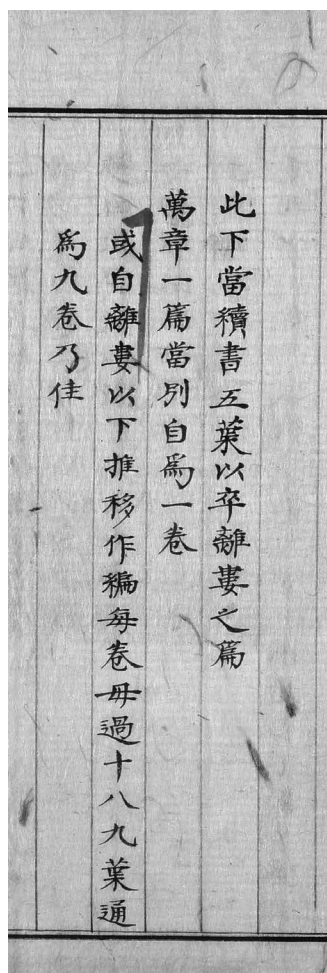
권7 고자



권8 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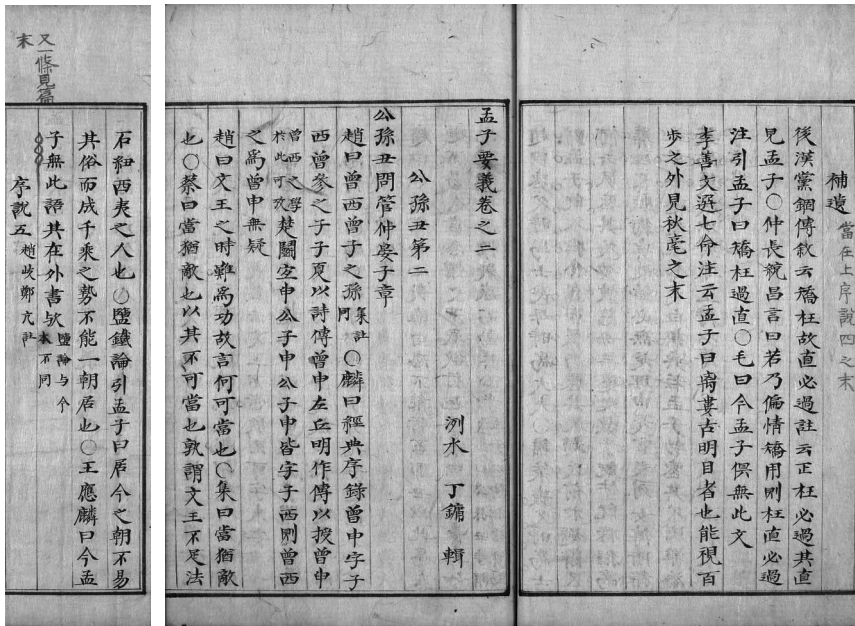


권9 진심



또한 『맹자요의』 5권의 끝장에는 이 책을 편집할 때의 편장과 종이의 사용에 대한 지시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한권 한권의 저작에 대한 다산의 세심한 준비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가장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교정부호

추가기재

1) 『맹자요의』 서설 보충

孟子要義 卷一 / 序說

序說 四【外書四篇】

趙岐〈題辭〉曰：“《孟子》又有外書四篇，〈性善辨〉·〈文說〉·〈孝經〉·〈爲正〉。其文不能弘深，不與內篇相似，非《孟子》本眞，後世依放而託之者也。”○《漢書·藝文志》：“《孟子》七篇。”○孫奭《正義》曰：“孝文廣游學之路，天下衆書往往稍出。由是《論語》·《孟子》·《孝經》·《爾雅》，皆出博士。當時乃有劉歆九種《孟子》，凡十一篇。”○鏞案趙岐親見四篇而不收，其不雅馴可知。《法言·修身》篇引《孟子》曰：“夫有意而不至者有矣，未有無意而至者也。”○《史記·六國表》注，皇甫謐曰：“孟子稱禹生石紐，西夷之人也。”○《鹽鐵論》引《孟子》曰：“居今之朝，不

與猶堂全書 二集 卷五

有意而不至者有矣。宋有無意而至者也。○史記六國表注。皇甫謐曰。孟子稱四生石紐。西夷之人也。○鹽鐵論引孟子曰。居今之朝。不易其俗。而成千乘之勢。不能一朝居也。○王應麟曰。今孟子無此語。其在外書歟。

補遺

後漢黨錮傳敘云。矯枉故直必過。註云。正枉必過其直。見孟子。○仲長統昌言曰。若乃偏情矯用。則枉直必過。注引孟子曰。矯枉過直。○毛曰。今孟子俱無此文。

李善文選七命注云。孟子曰。離婁。古明目者也。能視百步之外。見秋毫之末。

序說五 趙岐鄭元注。

孫興正義曰。炎漢之後。盛傳於世。爲之注者。西京趙岐出焉。至于李唐。又有陸善經出焉。爲之書。則有張鑑丁公著。自陸善經已降。其所訓說。

與猶堂全書

第二集 孟子要義 卷一

三

雖小有異同。而成歸宗於趙氏。隋志云。趙岐註孟子十四卷。又有鄭元註孟子七卷。在梁時。又有孫母遠孟子九卷。唐書藝文志又云。孟子注凡四家有三十五卷。至于皇朝崇文總目。孟子獨存趙岐注十四卷。唐陸善經註孟子七卷。凡二家二十一卷。今校正仍據趙岐註爲本。○正義序曰。臣與前奉勅。與同判國子監王旭。國子監直講馬龜符。國子學說書吳易直。馮元等。作正義二卷。○朱子曰。孫興正義。乃勸武士人作。不解名物制度。其書不似疏。○王應麟曰。孫興崇文總目。館閣書目。藏書志。皆無之。○歸案孫興官龍圖閣待制。而宋史職官志云。大中祥符中。建龍圖閣。以奉太宗御書。御製。則孫興要之爲祥符以後之人。

梁惠王第一

孟子見梁惠王章。

集曰。仁者。心之德。愛之理。義者。心之制。事之宜。○歸曰。董仲舒云。以仁治人。以義治我。劉原父云。仁字從人。義字從我。豈造文之意耶。○歸案。

易其俗，而成千乘之勢，不能一朝居也。”○王應麟曰：“今《孟子》無此語。其在外書歟。”【《鹽論》與今本不同】

補遺 《後漢·黨錮傳敘》云：“矯枉，故直必過。”註云：“正枉必過其直，見《孟子》。”○仲長統《昌言》曰：“若乃偏情矯用，則枉直必過。”注引《孟子》曰：“矯枉過直。”○毛曰：“今《孟子》俱無此文。”

李善《文選·七命》注云：“《孟子》曰，‘離婁，古明目者也，能視百步之外，見秋毫之末。’”

《定本 與猶堂全書 7》 27 ~ 28 卒

石細而夾之人也○鑒鐵論引孟子曰居今之朝不易其俗而成千乘之勢不能一朝居也○王應麟曰今孟子無此語其在外書歟據今
後漢書鍾傳叙云矯枉故直必過註云五枉必過其直
見孟子○仲長統昌言曰若乃偏情矯用則枉直必過
注引孟子曰矯枉過直○毛曰今孟子便無此文
李善文選七命注云孟子曰萬世古明目者也能視百
步之外見秋毫之末
序說五 趙岐鄭元註
孫奭正義曰炎漢之後歲傳於世為之注者西京趙岐

맹자요의 서설 4

出焉至于季唐又有陸善經出焉為之音則有張鑑丁公著自陸善經已降其所訓說雖小有異同而必歸宗於趙氏隋志云趙岐註孟子十四卷又有鄭元註孟子七卷在梁時又有蔡母遠孟子九卷唐書藝文志又云孟子注凡四家有三十五卷至于皇朝崇文總目孟子獨存趙岐注十四卷唐陸善經註孟子七卷凡二家二十一卷今校正仍據趙註為本○正義序曰且爽前本

맹자요의 서설 5

所不食者
而天子食
而天子食亦無
出夫天下井有
是乎天子自
領焉
乘則天子須有萬二千乘之地禮云周府史胥徒三百禮云周府史胥徒三百
而天子食亦無出夫天下井有是乎天子自領焉

가장본의 교정

乘地古百里出車千乘也又王臣之於國每十分而取其一○彌深天子有三公三孤六卿已十二人矣此十二人各食米千乘則天子須有萬二千乘之地禮云周府史胥徒三百禮云周府史胥徒三百
足二千乘而止大夫已下庶官三百禮云周府史胥徒三百禮云周府史胥徒三百
之等不得立錫之地孟什之祿而天子王食亦無出

여유당집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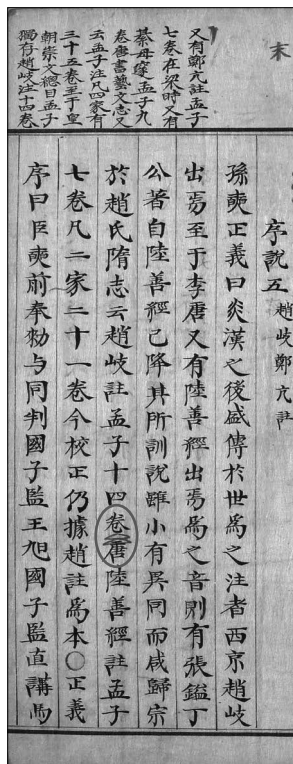
가장본에는 보는 바와 같이 주목으로 추가적인 교정내용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로 작성해 둔 것을 서설의 4편으로 편입시켜 반영하라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명확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 구절 단위로 추가 기록한 내용도 보인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본은 최초 작성된 이후 꾸준히 교정된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규장각에 소장된 『여유당집』은 가장본의 교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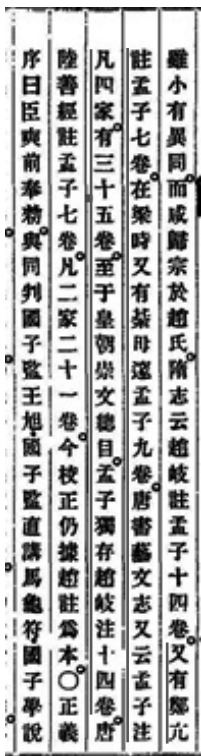
그런데 『여유당집』에는 ‘보유補遺’라는 표기를 반영하지 않고 〈서설序說 사四〉에 자연스럽게 반영한 데 반해 신조선사는 해당 부분을 ‘보유補遺’라는 표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서설序說 사四〉에 수록하고 있다. 『여유당집』만을 대본으로 삼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곧 이 가장본을 보지 못했다면 결코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 단적인 사례를 통해 신조선사의 『맹자요의』는 가장본을 모본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장본의 교정사항은 주석으로 반영할 것인가? 본문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명확하게 교정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에 삽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의 사이에 ‘8’ 형태의 교정부호를 하나만 표기하여 반영했고, 주석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88’의 형태를 둘을 쌍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전하는 간행본에는 대체로 충실하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추가 내용의 보완



가장본의 추가 교정사항



간행본의 반영

孟子要義 卷一 / 序說

序說 五【趙岐·鄭元註】

孫奭《正義》曰：“炎漢之後，盛傳於世，爲之注者，西京趙岐出焉，至于李唐，又有陸善經出焉。爲之音則有張鎰·丁公著。自陸善經已降，其所訓說，雖小有異同，而成歸宗於趙氏。《隋·志》云，‘趙岐註《孟子》十四卷，又有鄭元註《孟子》七卷，在梁時又有蔡母邃《孟子》九卷。’《唐書·藝文志》又云，‘《孟子》注凡四家，有三十五卷。’至于《皇朝崇文總目》，《孟子》獨存趙岐注十四卷，唐陸善經註《孟

子》七卷，凡二家二十一卷。今校正仍據趙註爲本。”○〈正義序〉曰：“臣爽前奉勅，與同判國子監王旭，國子監直講馬龜符，國子學說書吳易直·馮元等，作《音義》二卷。”○朱子曰：“孫奭《正義》，乃邵武士人作。不解名物制度，其書不似疏。”○王應麟曰：“孫奭《崇文總目》·《館閣書目》·《讀書志》，皆無之。”○**鋪案**孫奭官龍圖閣待制，而《宋史·職官志》云‘大中祥符中，建龍圖閣，以奉太宗御書御製’，則孫奭要之爲祥符以後之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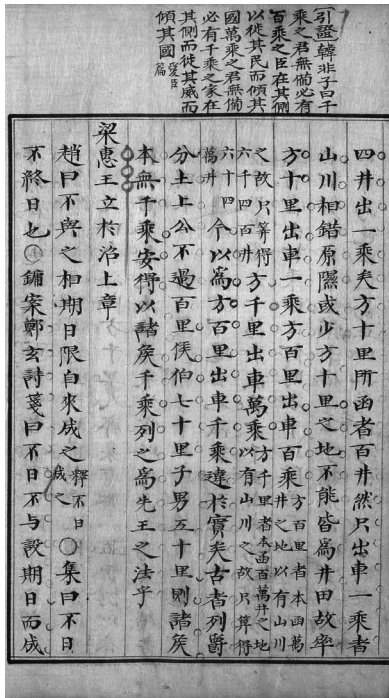
《定本 與猶堂全書 7》28 ~ 29쪽

2) 인용引證과 고증考證 등 추가 내용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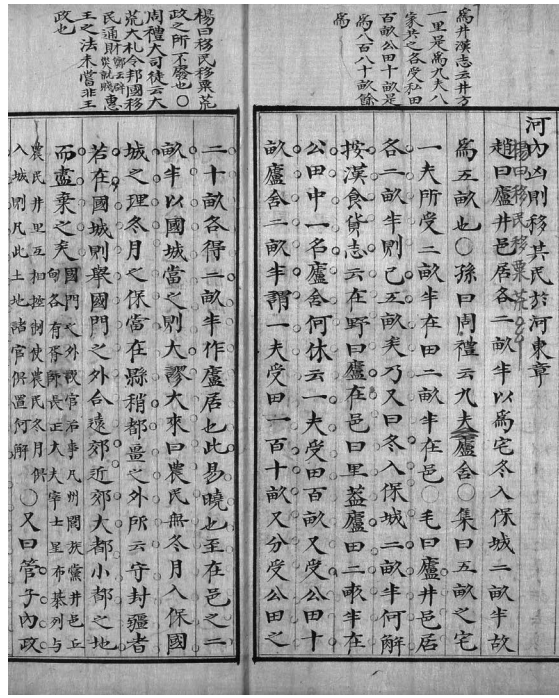
또한 ‘인증引證’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나 난외주의 위치를 조정한 곳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정본과 신조선본 역시 적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孟子見梁惠王章

○《集註》謂‘方千里，出車萬乘，方百里，出車千乘’，此又必不可通者也。誠若方百里出車千乘，則方千里者當出十萬乘。誠若方千里出車萬乘，則方百里者當出百乘而止。何則？方千里所函之地，... 爲方百里者百，其出車乘，豈僅十倍而止乎？據《刑法志》，方里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乃出車一乘，則每六十四井，出一乘矣。方十里所函者百井。然只出車一乘者，山川相錯，原隰或少，方十里之地，不能皆爲井田。故率方十里出車一乘，方百里出車百乘，【方百里者，本函萬井之地，以有山川之故，只算得六千四百井】方千里出車萬乘。【方千里者，本函百萬井之地，以有山川之故，只算得六十四萬井】今以爲方百里出車千乘，違於實矣。古者列爵分土，上公不過百里，侯伯七十里，子男五十里，則諸侯本無千乘，安得以諸侯千乘，列之爲先王之法乎？



孟子見梁惠王上章 (양혜왕상 1장)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章 (양혜왕상 3장)

引證《韓非子》曰：“千乘之君無備，必有百乘之臣在其側，以徙其民而傾其國。萬乘之君無備，必有千乘之家在其側，而徙其威而傾其國。”【《愛臣》篇】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章

楊曰：“移民·移粟，荒政之所不廢也。”《周禮·大司徒》云：“大荒·大札，令邦國移民通財。”【鄭云：“辟災就賤。”】惠王之法，未嘗非王政也。○趙曰：“廬井·邑居，各二畝半以爲宅。冬入保城二畝半，故爲五畝也。”○孫曰：“《周禮》云，‘九夫爲井。’《漢·志》云，‘井方一里，是爲九夫。八家共之，各受私田百畝，公田十畝，是爲八百八十畝，餘爲廬舍。’”○《集》曰：“五畝之宅，一夫所受，二畝半在田，二畝半在邑。”

方千里出車萬乘。山方千里之車。萬乘。今以爲方百里。出車千乘。過於實矣。古者列爵分土。上公不過百里。侯伯七十里。子男五十。則諸侯本無千乘。安得以諸侯千乘列之爲先王之法乎。
〔引證〕韓非子曰千乘之君無備。必有百乘之臣在其側。以徒其民而傾其國。萬乘之君無備。必有千乘之家在其側。而徒其威而傾其國。
 梁惠王立於沼上章。
 趙曰不與之相期日限。自來成之。成。不。日。不。終日也。○鋪案鄭玄詩箋曰不日。不與設期日而成之。韋昭國語註曰不日。不課程以時日。此。謂。期。日。古。註。皆。同。○若不終日。不可曰不日。易曰介于石。不終日。老子曰馳風不終朝。驟雨不終日。皆有終字。公羊穀梁傳不書日者謂之不日。與不設期日而謂之不日者。其例正同。
 與猶堂全書 第二集 孟子要義 卷一 五
 趙曰豐鹿懷妊安其所而伏。不驚動也。○鋪案伏當去聲讀。鳥抱卵曰伏。獸懷妊亦曰伏。圖伏叶韻。灌鵲叶韻。其法嚴矣。趙註必言懷妊。以其牝鹿也。集註去懷妊二字。則詩稱牝鹿無意。
 趙曰時是也。日乙卯日也。害大也。言是日榮當大喪亡。我與女俱往亡之。○集曰榮嘗自言吾有天下。如天之有日。日亡吾乃亡耳。
 鋪按舊說非。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章。
 楊曰移民移粟。荒政之所不廢也。○周禮大司徒云大荒大札。令邦國移民通財。○惠王之法。嘗非王政也。○趙曰廩井邑居。各二畝。半以爲宅。冬入保城。二畝半。故爲五畝也。○孫曰周禮云九夫爲井。漢志云井方一里。是爲九夫。八家共之。各受私田百畝。公田十畝。是爲八百八十畝。餘爲廩舍。○集曰五畝之宅。一夫所受。二畝半在田。二畝半在邑。○毛曰廩井邑居。各二畝半。則曰五畝矣。乃又曰冬入保城。二畝

관련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 교정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정의 글씨가 동일한 필체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초의 저작 이후에 다산이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보충하고 있다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간행본이나 정본만으로는 그 내용을 접할 수 없는 매우 의미심장한 면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충이 어느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논거와 관련한 인증 부분이다. 비증과 빈도에서 가장 빈번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引歷漢上吉傳云
氏大饑而死又不
焚為大豬所食人
至和食而後則食
粟若其大肥氣盛
怒至乃日步作之
王書後卒于大而
氏父因當若是
乎○毛曰此猶孟
子語陳而為言
 與庖有肥肉廄有肥馬意不同○麟曰止齋曰人多言
 常平出漢耿中丞顏師古以壽昌為權趙豈知常平蓋
 古制孟氏言狗彘食人食而不知檢塗有餓殍而不知
 發今文作檢班氏食貨志作斂是也夫豐歲不斂饑歲
 不發豈所謂無常平乎
 梁襄王望之不似章
 趙曰嗜猶甘也言今諸侯有不甘樂殺人者則能一之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章
 (양해왕상 3장)

齊宣王曰文王之園
方幾里中常侍樂
松對帝曰昔文王
園百里人以爲小齊
宣五里人以爲大○
毛曰宣王孟子不同
 郭處士吹竽乃宣王時兄辯非內儲說
 集曰極窮也○鋪案父子不相兄兄弟妻孥散十一
 字乃極字之註脚先言而後解之如下篇我竭力耕田恭爲子
 職而已夫父母之不我愛於我何哉二十二字乃恕字
 之註脚先言而後解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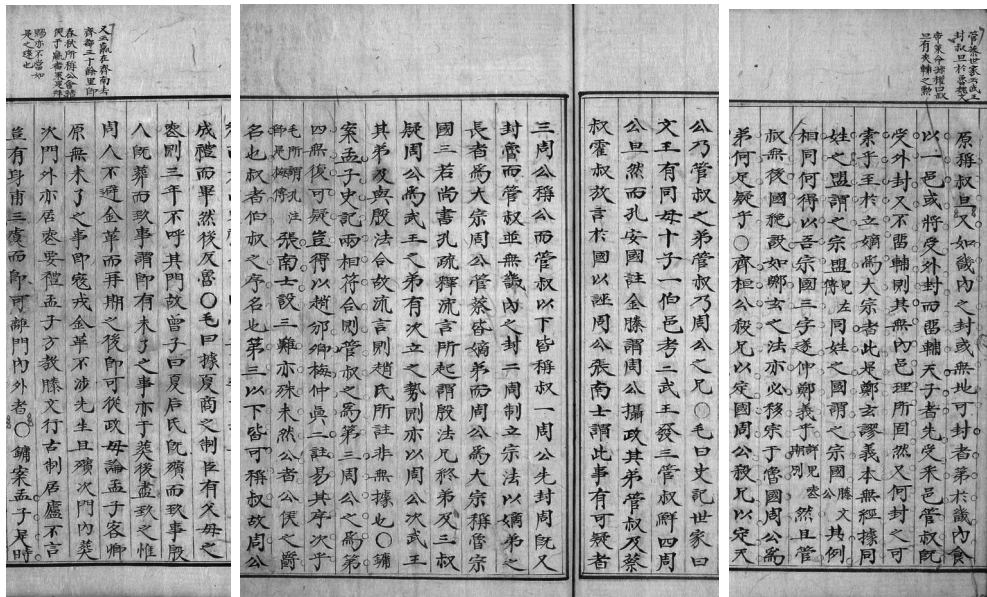
齊宣王曰文王之園章
 (양해왕하 2장)

孔子曰三軍可奪
附匹夫不可奪志
以志爲師
亦有所本
 趙曰志心所念慮也氣所以充滿形體爲喜怒也○又
 曰志帥氣而行之○集曰志爲氣之將帥○鋪案志爲
 將帥氣爲卒徒朱子之義不可易也○恒志者心之所
 此固然矣志解氣心氣之爲物不可不覈若以後生理
 氣之說渾合言之則大不可止原夫吾人之所以生養
 動覺惟有血氣一物論其形質血粗而氣精血鈍而氣

公孫丑問不動心章
 (공손추상 2장)

난외주의 추가적인 교정은 주로 ‘인증引證’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해왕하 2장’의 경우는 본래 최초의 저술에는 주석이 없던 것이다. 보충의 과정에서 고이考異의 강화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양해왕상 3장’과 더불어 모기령의 의견이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기령의 저작을 추가로 독서한 후에 첨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공손추상 1장’의 경우 집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충하는 데 『논어』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완한 것이다. 따로 [인증]이나 [고이]의 방식



自齊葬於魯充虞敦匠事章

(공순추하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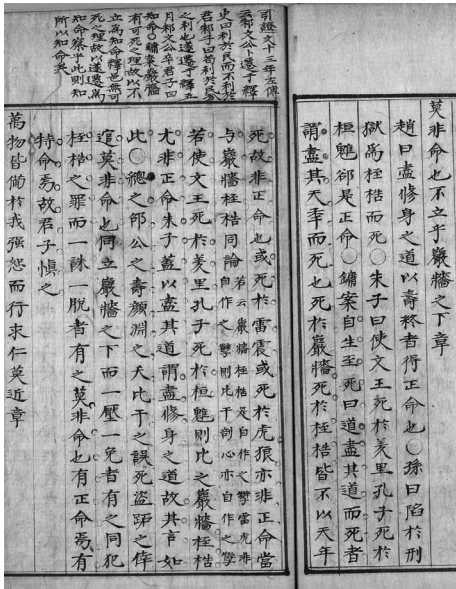
燕人畔周公管叔章 (공순추하 8장)

을 반영하지 않고 본문에 곧장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는 신조본과 정본에서 모두 주석의 방식으로 “【孔子曰：“三軍可奪帥，匹夫不可奪志。”以志爲帥，亦有所本】”의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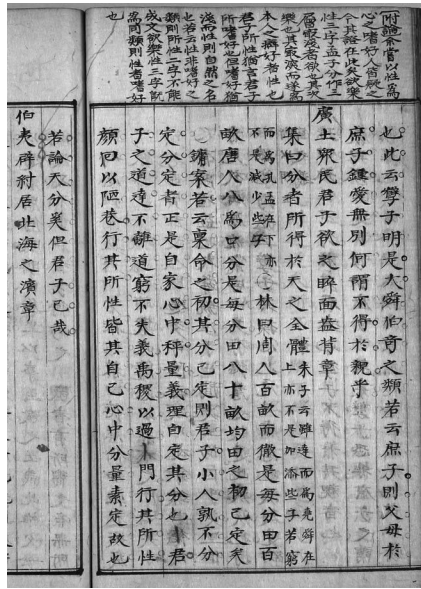
또한 인용과 부론附論 등에 상당히 많은 양의 설명과 교정을 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 역시 가장본의 교정사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이다.

3) 모기령 주석의 추가 독서 또는 반박

공순추하 7장과 8장의 주석 보완은 명백하게 모기령과 관련이 있다. 다산은 모기령의 의견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한편 모



莫非命也不立乎巖牆之下章
(진심상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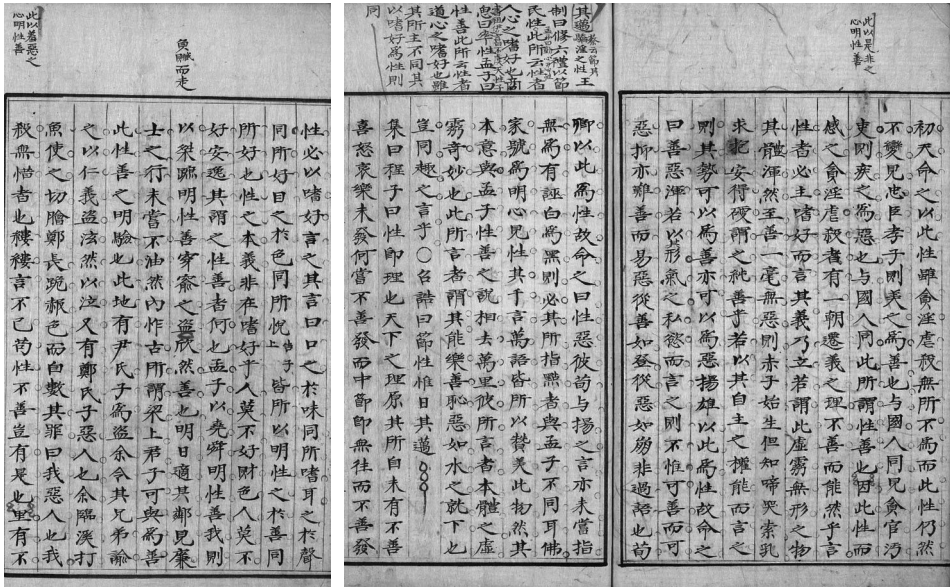


廣土衆民君子欲之醉眠盆背章
(진심상 21장)

기령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모기령이 인용한 「사기세가(史記世家)」의 다른 사례를 인용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맹자요의(孟子要義)』의 완성 이후로도 꾸준히 모기령을 의식하고 추가 독서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문장 자체의 보완

등문공 1장의 경우, 최종 정본에서 본문으로 반영된 ‘負贓而走’나 ‘其邁。’【蔡云：“節其驕淫之性。”】〈王制〉曰：“修六禮以節民性。”《孟子》曰：“動心忍性。”此所云性者，人心之嗜好也。〈商書〉祖伊之言曰：“不虞天性。”子思曰：



滕文公爲世子孟子言必稱堯舜章

(東門公上 1장)

“率性。”《孟子》曰：“性善。”此所云性者，道心之嗜好也。雖其所主不同，其以嗜好爲性則同。’ 등은 『맹자요의』의 완성단계나 필사본의 검증에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전자는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문필적인 보완을 더 진행했다는 것인데 때로 문필적인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엄밀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곳도 적지 않다. 후자는 이 가장본 『맹자요의』의 원본은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져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문헌근거를 인용하여 견해를 보장하는 차원의 내용이지만 ‘此所云性者，道心之嗜好也。雖其所主不同，其以嗜好爲性則同’과 같은 부분은 핵심적인 주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추가적인 보충의 의미가 결코 간과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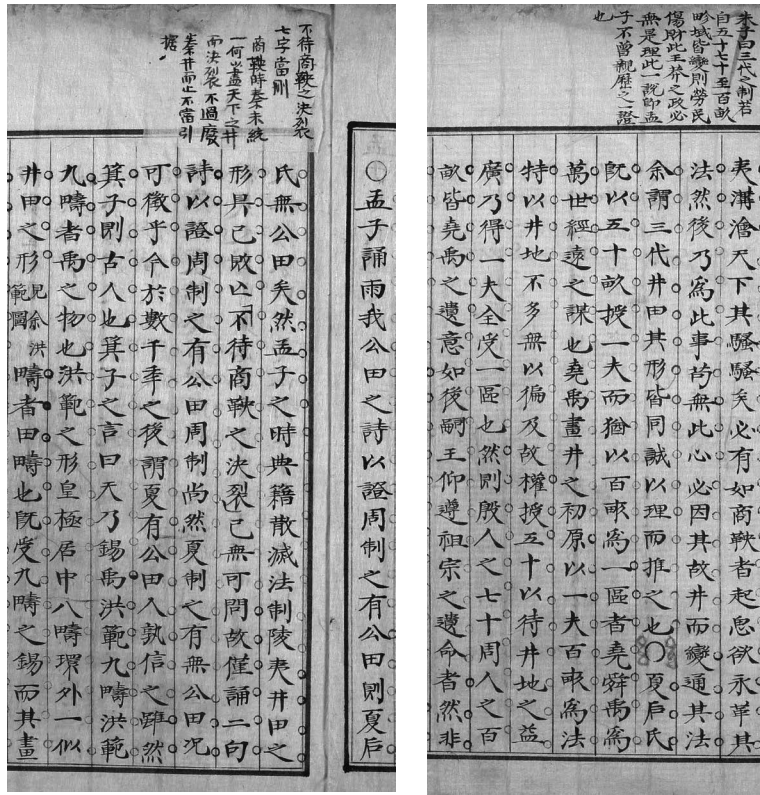
수 있다.

또한 두주頭註로 삽입되어 정본에서 【此以羞惡之心明性善】，【此以是非之心明性善】로 반영된 설명은 전체적으로 주석의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해주어 더욱 명확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다산이 저작 이후에 논거의 보충 뿐 만이 아니라 논리의 세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5) 첨지교정 및 추가교정의 사례

○孟子誦‘雨我公田’之詩，以證周制之有公田，則夏后氏無公田矣。然孟子之時，典籍散滅，法制陵夷，井田之形，具已敗亡，已無可問。故僅誦二句詩，以證周制之有公田。周制尚然，夏制之有無公田，況可徵乎？今於數千年之後，謂夏有公田，人孰信之？雖然，箕子則古人也。箕子之言曰：“天乃錫禹洪範九疇。”洪範九疇者，禹之物也。洪範之形，皇極居中，八疇環外，一似井田之形。【見余《洪範圖》】疇者，田疇也。既受九疇之錫，而其畫地爲田，不用九疇之法，必無是理，夏制之有公田，明矣。又夏后營國之法，明亦九區。故啓之誓師，先召六鄉之卿。既有六鄉，則明亦王宮居中，面朝後市，與周法同也。營國既然，則治田亦然。故禹自奏其功曰：“予決九川距四海，濬畎澮距川。”畎澮者，井田之物，非井田而有畎澮，所謂無麋之飫飢，井田非夏制乎？

첨지의 교정은 특히 ‘정전제’ 등에 대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정전제에 대해 다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맹자요의』 등의 저술 이후에 『경세유표』를 완성하면서 정전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견의 교정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의 주석과 상이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 이를 상호 교차하여 보완하는



孟子公問爲國夏殷周皆什一章 (등문공상 3장)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6) 분장과 특징적인 비점

해당 장(다음 장의 좌우 사진 참조)은 등문공이 즉위하여 국정을 묻자 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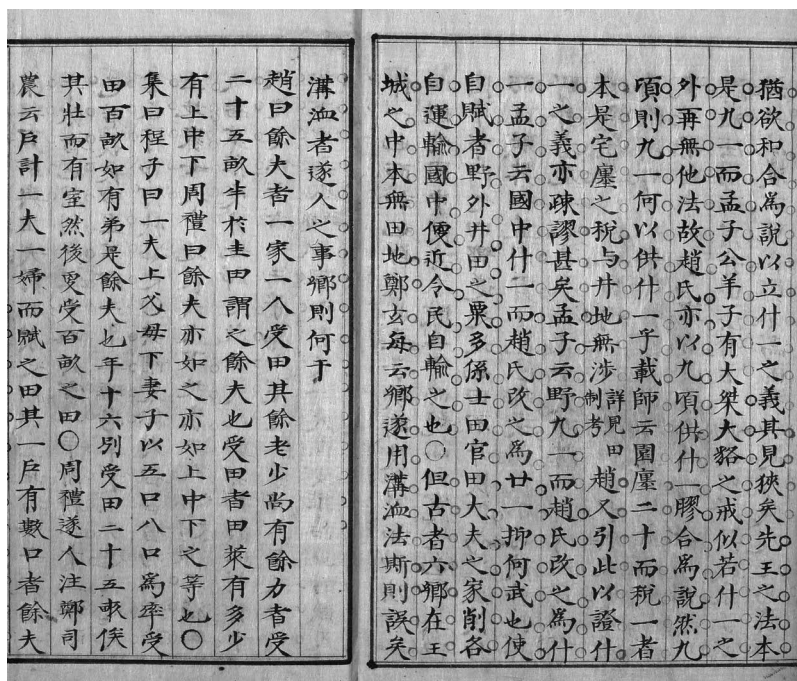
9) 관련하여 윤석호, 「가장본 『경세유표』의 서지적 검토(1)」,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滕文公問爲國夏殷周皆什一章

자가 정전제의 내용을 말하는 곳으로 정전제의 원형이 제시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등문공은 자신이 직접 묻거나 또는 부하 필전을 시켜 다시 묻게 한다. 다산은 필정을 시켜 다시 묻게 하는 대목을 새로운 장으로 분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장절 체계를 존중하여 우선 장章으로 표기하지 않고 절節로 표기했다. 정본에서 역시 “使畢戰問井地節 此節當別爲一章, 以無‘滕文公’三字, 故諸本皆合釋之。今姑界別。”라고 구분하여 다산의 편집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볼 것은 여느 부분과는 달리 ‘용안鋪案’에 흑목과 주목에 의한 비점이 상당히 많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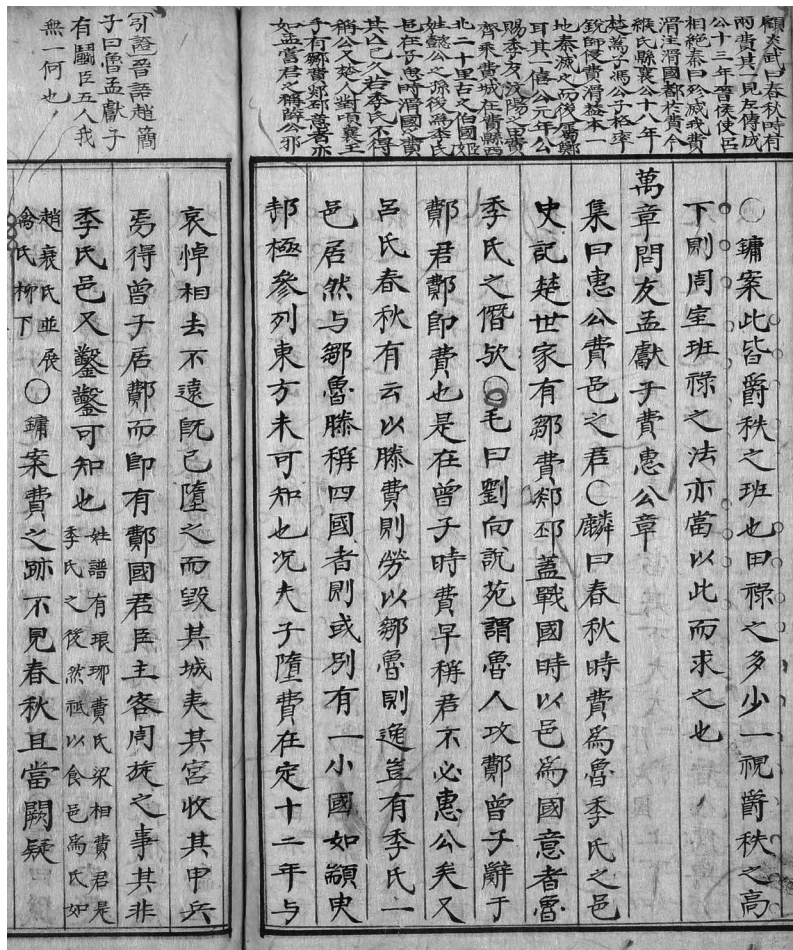


(등문공상 3장)

하고 주목했다는 것인데 이는 등문공위국장 전반을 관통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정전제에 대한 다산의 관심과 정밀한 검토를 해야될 수 있거나와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았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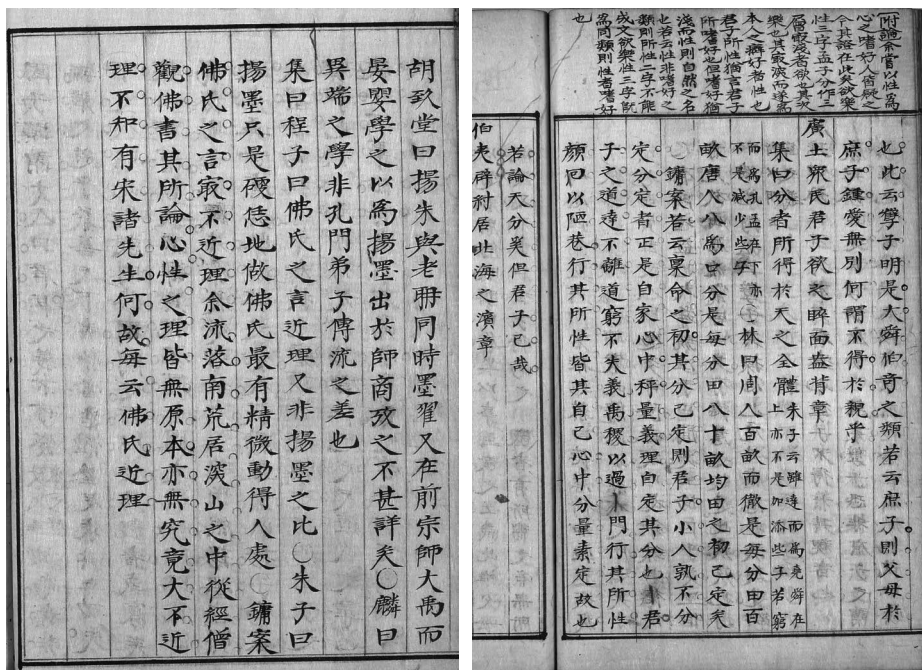
7) 기타 인용되는 주요 의견

해당 내용은 고염무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어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다. 다산이 고염무의 저작을 강진 유배 시에 보았다면 응당 저작 당시에



萬章問友孟獻子費惠公章(만장하 3장)

이 내용이 본문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긴 내용이 난외주로 반영된 것은 그 이후의 검토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의 고염무 독서에 대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문공하 9장)

8) 해배 이후 저작의 증거

胡致堂曰：“楊朱與老聃同時，墨翟又在前，宗師大禹，而晏嬰學之。以爲楊·墨出於師·商，攷之不甚詳矣。”○麟曰：“異端之學，非孔門弟子傳流之差也。”

《集》曰：“程子曰，‘佛氏之言近理，又非楊·墨之比。’”○朱子曰：“楊·墨只是硬恁地做。佛氏最有精微，動得人處。”○**鑄案** 佛氏之言，最不近理。余流落南荒，居深山之中，從經僧觀佛書，其所論心性之理，皆無原本，亦無究竟，大不近理。不知有宋諸先生，何故每云佛氏近理。



告子曰生之謂性犬牛人之性章 (고자상 3장)

위의 내용은 『정본 여유당전서』의 해제를 교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정본의 해제에 따르면 이 책은 “해배 이후에 수정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사본은 강진 유배시의 저술내용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위의 “**鋪案 佛氏之言, 最不近理. 余流落南荒, 居深山之中, 從經僧觀佛書**” 등의 내용을 본다면 이는 분명 해배

이후에 추가 기술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본문으로 반영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맹자요의』의 어느 부분은 해배 후에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된 내용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부론’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이러한 심증을 굳히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증거이다.

3. 결론

이 검토를 통해 신조선사본 『맹자요의』의 대본은 『여유당집』이 아니라 가장본을 최종 간행 대본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배 이후에도 『맹자요의』의 추가적인 보완은 지속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본 필사본에는 권차에 대한 정보가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어 9권 3책의 최초 편차의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분량을 고려한 편차의 타당함이 인정되므로 이는 향후 진행될 다산의 최초 의도가 반영된 『여유당전서』의 편차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장본의 존재는 현재 《정본 여유당전서》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배 이후에도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 꾸준히 저작을 손질하고 보충하고 있는 다산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맹자요의』를 비롯한 다산의 필사본 연구는 정본의 편찬과는 별도로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7일, 심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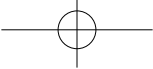
참고문헌

원전

- 丁若鏞, 송재소 외,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丁若鏞, 정인보 외, 『與猶堂全書』, 新朝鮮社, 1934.
- 丁若鏞, 『與猶堂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18945).

논문

- 김보름, 「『여유당집』 체제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 박철상,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필사본 조사와 성과」, 여유당전서 정본사업 워크숍 발표문, 2006.
- 박철상, 「다산 저작 고본의 제문제」,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 안병직, 「목민심서 考異」,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 윤석호, 「가장본 『경세유표』의 서지적 검토(1)」,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 장동우, 「『여유당전서』 정본사업을 위한 필사본 연구」, 『다산 필사본 연



구』, 사암, 2019.

최익한, 『실학과와 정다산』, 청년사, 1989.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정본 여유당전서』 소재 『맹자요의』의 내용을 정본 작업시 반영하지 못한 가장본 『맹자요의』와 비교하여 연구한 필사본 연구의 하나이다. 기출간된 정본에 추가적인 교정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적 작업이자 완성된 정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맹자요의』 집필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접근이다.

정본은 해제에서 『맹자요의』의 판본은 『여유당전서』 경집 5~6권에 2책으로 편집되어 수록된 신조선사본과 9권 3책으로 편집된 규장각 소장 필사본 『여유당집』 외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신조선사본은 규장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필사본을 대본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 짐작은 얼마간의 진실을 담고 있다. 다만 가장본의 교정사항이 『여유당집』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여유당집』은 가장본의 후대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설 4」의 ‘보유’에 대한 삽입 형태에서 신조선사본은 후대본인 『여유당집』이 아니라 이 가장본을 간행 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제에서 ‘이 『맹자요의』는 해배 이후에 수정했다는 기록이 없어 필사본은 강진 유배시의 저술 내용 그대로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필사된 난외의 보론과 자신의 유배생활의 경험이 본문에 반영된 것에 비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본 필사본에는 권차에 대한 정보가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어 9권 3책의 최초 편차의 확인할 수 있다. 그 분량을 고려한 편차의 타당함이

인정되므로 이는 향후 진행될 다산의 최초 의도가 반영된 『여유당전서』의 편차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과 고증이 추가 반영되는 것이나 논리부분이 집중적으로 후작업을 통해 보완되는 과정 또는 논리 부분이 보충되고, 모기령 등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정황을 가장본 필사본은 여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문장 자체를 보완하거나 고염무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부분은 다산의 하나의 경학 저작을 완성하는 데 들인 공력이나 학문적 축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저작이 해배 후에도 꾸준히 교정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 책의 저술과정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볼 대목이다.

이러한 학술저작의 다기한 정황에 대해서 필사본 가정본 『맹자요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정본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얼마간의 내용을 교정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여유당전서』 필사본, 가장본 『맹자요의』, 판본 검토, 해제 보완, 해배 후 저작.

Abstract

The Review on Some Aspects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Maengja youi*(『孟子要義』)

Ham Young-da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one of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studies with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Maengja youi*(『孟子要義』), a theme for *Official edition of Yeoyudang Jeonseo*(『定本與猶堂全書』) with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Maengja youi* that was not reflected when working on the genuine copy. This would be a meaningful approach to confirm the situation of the time to write *Maengja youi* that is difficult to discover in the completed genuine copy as well as an scholastic endeavor to confirm if there is any additional calibration to the previously published genuine copy.

In the description, the genuine copy is presumed as not having any other copy but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kept in Gyujang-gak, *Yeoyudangjip*(『與猶堂集』) edited in *Sin-Joseon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and 9 volume 3 books from the *Yeoyudangjeonseo*(『與猶堂全書』) Script Collection for 5-6 volumes 2 books for the edition of *Maengja youi*. As a result, this *Sin-Joseon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is assumed to have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with the same contents as the script had the collection in Gyujanggak(奎章閣) is not set for the script. This assumption contains certain truth within. However, the calibrated matters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are deemed to be reflected on *Yeoyudangjip* that *Yeoyudang-jip* is shown to be the post-script of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In addition, *Sin-Joseon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in the insertion type on the 'Addenda' of "Introduction Four" is known to be facilitated at the time of publishing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not the post-script of *Yeoyudangjip*.

In the descrip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is *Maengja youi* shows that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would be the genuine contents of writings at the time of exile in Gangjin since there is no record showing any correction after the description', but it has to be amended in light to the reflection of experience in the time of exile and supplementary discussion separately transcribed in the aspect of the main context.

I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the information on author is completely recorded that the initial deviation of the 9 volumes and 3 books. The reasonableness of deviation considering the volume is recognized that the initial intent of Tasan is contains the possibility to reflect in the deviation of *Yeoyudang Jeonseo* that is to be process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is duly

displayed for the situations of having additional reflection of certification and historical research, process of supplementing the logics part intensely through the pose works, or the logics part is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reflection of opinion by Mao Qi Ling and others. In addition, the part where the sentence itself is supplemented or the opinion of Gu Yan-wu additionally reflect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o display the academic accumulative process or meritorious effort to complete the publication of Confucian Classics of Tasan. In addition, the part that displays the situation for steady calibration with the publication after the release from exile is the aspect of looking in relation to the publication process for the book.

With respect to the diverse situations of such academic publications, the collection of manuscripts of the genuine copy *Maengja youi*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that it is expe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uine copy and facilitate the same in calibrating the contents to a certain level.

Key Words | *Yeoyudang Jeonseo* collection of manuscripts,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Maengja youi*(『孟子要義』), review of edition, supplementing description, publication after release from exile.